

中國語와 韓國語의 話題構造 研究

崔 鳳 娘*

<目 次>

I. 緒 論	IV. 韓國語의 二重主語文과 話題化文
II. Li & Thompson의 言語類型論	V. 中·韓 話題構造의 對比
III. 中國語의 主述述語文	VI. 結 論

I. 緒 論

주술술어문은 중국어에서 보편적인 문형의 하나로 중국문법학계에서는 이를 중국어의 특수한 문법현상이라고 여기고 있다. 朱德熙(1985: 2)도 말했듯이 특수하다는 것은 비교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고 중국어의 특수한 현상이라고 할 때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 비교대상은 인구어(印歐語)였다. 즉 인구어에 이런 문장유형이 없기 때문에 중국어만의 특수한 언어현상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하지만 비교의 대상을 한국어로 바꾸어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예로부터 한국어에서도 주술술어문 혹은 이중주어문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문장유형이 존재해왔고 한국 문법학계에서도 이를 한국어의 특징이라고 여겨왔기 때문이다.¹⁾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주술술어문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 경일대학교 국제교류교육센터 수업전담교수

1) 일부에서는 문장의 주어는 하나 이상이 될 수 없으며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은 두 개의 주어가 아니라 주격조사를 취하는 두 개의 명사일 뿐이라는 의미에서 “주격중출문(主格重出文)”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우리는 이런 문법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본문에서는 Li & Thompson (1976)이 제기한 화제를 중심으로 하는 언어유형론을 참고해 논의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II. Li & Thompson의 言語類型論

언어는 여러 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론은 형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세계 각 언어는 굴절어, 교착어, 고립어 등의 분류가 가능하다. 통사적 특징이나 음운 등을 근거로 친족관계를 논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인도유럽어족, 알타이어족, 중국 티베트어족 등의 구분이 가능하다. 주요 문장성분인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를 기준으로 유형론을 논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SVO, SOV 등의 구분이 가능하다. 한편 Li, Charles & Sandra, Thompson은 《Subject and Topic: A New Typology of Language》(1976)에서 기존의 언어 유형론과는 다소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언어유형론을 펼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주어와 ‘화제(topic)’를 중심으로 하는 언어유형론이다.

이 논문에서 Li & Thompson은 주어(Subject)와 화제(Topic)와의 관계 그리고 화제중심 언어의 특징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화제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없었지만 자신들이 쓴 중국어 문법서인 《Mandarin Chinese》에서는 화제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화제는 문장의 서술 대상으로 항상 문두에 오며 화자는 청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대상을 화제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은 한정적이거나 총칭적임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화제 뒤에는 휴지가 따른다. 영어의 모든 문장에는 주어가 있고 주어와 동사 간에는 일치관계가 있으므로 문장의 주어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문장구조에서 주어가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며 화제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따라서 화제를 주어, 명사구,

동사구와 함께 주요 문장성분이 될 수 있다. 이때 화제는 의미적으로 서술의 틀을 제공하므로 반드시 한정적이거나 총칭적 이어야하며 통사적으로 화제는 반드시 문두에 와야 하고 화제 뒤에는 휴지나 어기사를 둘 수 있다. 물론 화제를 문장성분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있어야겠지만 일부 언어에서 화제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문법 현상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의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문법 연구에서는 주어라는 개념을 문장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관계의 하나로 본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일부 언어의 기본적인 문장구조는 ‘주어-서술어(subject-predicate)’가 아니라 ‘화제-설명(topic-comment)’이다²⁾. 따라서 일부 언어의 문법 연구에서 ‘화제’라는 개념은 주어라는 개념과 똑같은 중요성을 갖는다. 그리고 어떤 유형의 언어이냐에 따라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도 당연히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언어유형을 ‘주어 중시(subject-prominent)언어’, ‘화제 중시(topic-prominent) 언어’, ‘주어와 화제 중시 언어 및 ‘주어와 화제 모두 중시하지 않는 언어’등 네 종류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주어중시언어’에서는 ‘주어-서술어’라는 관계로 문장구조를 설명해야 하며 ‘화제중시언어’에서는 ‘화제-설명’이라는 관계로 문장구조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유형론에서 한국어는 일본어와 함께 ‘주어와 화제를 모두 중시하는 언어’에 속하고 중국어는 ‘화제를 중시하는 언어’에, 인구어와 인도네시아어는 ‘주어를 중시하는 언어’에, Tagalog와 Ilocano 등 언어는 ‘주어와 주제를 모두 중시하지 않는 언어’에 속한다고 하였다.

다른 유형론적인 분류처럼 ‘주어중시언어’와 ‘화제중시언어’는 하나의 연속체를 이루는데 통시적으로 주어와 화제는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주어는 사실상 문법화(Grammaticalization)된 화제라고 한다.³⁾ 화제가 동사와

2) 사실 기존의 주어-술어 관계를 전면 부정하고 화제-설명 관계로 모든 문장을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일부 문장을 화제-설명 관계로 설명하는 것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3) 모든 언어에는 ‘내용어(어휘항목)’와 ‘기능어(문법어)’의 구분이 있다. 내용어가

격관계를 이루는 과정에서 다른 성질이 끼어들게 되고 동시에 화제로서의 특징이 약화되기도 하지만 화제성이 아주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일부 언어에서 주어와 화제의 특징도 가지는 이유라는 것이다. 통시적으로 봤을 때 한 언어는 주어를 중시하는 단계에서 주어와 화제를 모두 중시하는 단계를 거쳐 화제를 중시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런 과정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구문이 바로 ‘이중주어’구문이다. 이런 구문은 전형적인 ‘화제-설명’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한 언어에 이런 구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화제를 중시하는 언어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화제중시언어’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중주어문이다. 화제가 우세한 언어는 주어와 두드러진 언어와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고 하였다.

- 1) 화제가 표면 구조상의 표지(surface coding)를 드러낸다.
- 2) 피동구조(passive construction)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
- 3) ‘형식주어(dummy subject)’가 발달되지 않았다
- 4) ‘이중주어(double subject)’현상이 나타난다.
- 5) 화제가 ‘동일 지시어에 대한 제어(controlling coreference)’를 하게 된다.
- 6) 동사 문말 언어(verb-final language)이다.
- 7) 화제가 되는 성분에 제약이 없다.
- 8) ‘화제-설명’ 구조가 기본구조이다.

특히 이중주어문은 ‘화제중시언어’의 여러 가지 특징 중 하나이긴 하지만 다른 특징들에 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는 이중주어문의 대주어는 화제로 나머지 부분은 설명으로 기능하는데 이때 다른 설명부분과는 다르게 이중주어문의 설명부분은 자체가 하나의 문장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중주어문은 좀 더 전형적인 ‘화제-설명’구조

기능어의 문법적 특징을 지니게 되면 그 형태는 “문법화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Paul J. Hopper, Elizabeth Closs Traugott, 《Grammaticalization》 1993, 김은일·박기성·채영희 옮김(한신회사), 1999, 5쪽.

를 띠고 있으며 Li & Thompson도 이중주어문을 화제중심언어의 중요한 특징으로 들고 있다.

Ⅲ. 中國語의 主述語文

《實用現代漢語語法》(劉月華 등, 2001: 664)에서는 주술술어문은 주술구조가 서술어로 쓰이는 문장으로 이는 중국의 독특한 문장이라고 적고 있다. 주술구조는 주어와 술어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어는 서술의 대상, 즉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화제이고 술어는 이에 주어에 대한 서술, 즉 주어는 무엇 혹은 어떻게 설명한다.(朱德熙, 1982: 17) 주술술어문에서는 주술구조가 서술어로 쓰이기 때문에 주술술어문이라는 문장 전체의 주어 외에도 서술어인 주술구조에 또 주어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주어가 출현하는 것이다. 이때 전체 문장의 주어를 보통 대주어, 서술어인 주술구조의 주어를 소주어라고 부른다. 중국문법학계에서는 주술술어문이라는 문형이 존재한다는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주술술어문의 범위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이유는 중국어 주어의 의미적 성질과 관계가 있다. 만약 중국어 주어의 의미적 성질을 행위자에 한정하면 주술술어문의 범위는 그리 넓지 않다. 예를 들면

- (1) 這個人心眼兒好
- (2) 我們班一半是南方人

여기서 대주어 ‘這個人’과 ‘我們班’은 전체 문장의 화제로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나타내고 서술어인 ‘心眼兒好’과 ‘一半是南方人’은 화제를 설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 설명부분은 자체가 하나의 문장형태로 주술구조를 이루고 있다. 위 예문에서 대주어와 소주어간에 종속관계나 전체-부분의 관계가 존재하는데 이런 주술술어문은 학자들 간에 이견이

가장 적은 또한 가장 전형적인 주술술어문으로 주술술어문이라는 문형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이런 문장을 주술술어문의 범주에 넣는다. 이런 주술술어문에서는 대주어와 동사 간에는 직접적이거나 긴밀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대주어와 소주어간에 종속, 혹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보통 대·소주어간에 구조조사 ‘的’을 넣을 수 있다. 예를 들면,

- (3) 他的頭疼
- (4) 李老師的身體很好

이를 근거로 일부 학자들은 주술술어문이라는 특수한 문형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수식구조에서 조사 ‘的’이 생략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떠한 문장은 대소주어 간에는 ‘的’을 넣을 수 없다. 예,

- (5) 王先生人很好 → * 王先生的人很好
- (6) 水果我最愛吃葡萄 → * 水果的我最愛吃葡萄

더구나 대·소주어간에 ‘的’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에 따라 의미상 다소 간 차이가 나기로 대·소주어간의 관계를 수식구조로 보기는 힘들다. 가장 주요한 근거는 바로 대·소주어간에 조사 ‘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문장 전체의 진술 대상이 바뀐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他頭疼’은 ‘그’가 어떡하다는 것이지만 ‘他的頭疼’은 ‘그의 머리’가 어떡하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어에서 행위자 이외의 의미적 성분이 문두에 왔을 때 이것이 주어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다. 주어, 빈어문제에 대한 朱德熙(1982/1985)의 입장은 명확한데 그는 주어란 술어에 대응하는 개념이며 빈어란 동사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주어와 빈어에는 직접적인 구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⁴⁾ 표면적으로는 ‘張老師教地理’에서

4) 중국어에서 주어에 관한 의견 대립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어를 의미적인

‘教’는 주어와 빈어를 같은 층위에서 연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주어 ‘張老師’는 서술어 ‘教地理’와 관련되는 것이고 빈어 ‘地理’는 동사 ‘教’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 성분이 주어인가 빈어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를 포함한 구조가 주술구조인가 동빈구조인가를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어는 행위자이고 빈어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며 만약 행위자가 동사 뒤에 위치한 경우에도 이를 주어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7) 來客人了。

(8) 台上坐着主席團。

위 예문에서 동사 ‘來’와 ‘坐’는 모두 한자리 서술어로 하나의 논항만을 요구하며 이 논항은 ‘客人’과 ‘主席團’은 통상 빈어가 나타나는 위치인 동사 뒤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客人’과 ‘主席團’이 동사의 행위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주어라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a) 買票 b) 住人 c) 票買了 d) 人走了

의미적으로 주어와 빈어를 구분한다면 a)와 c)가 같은 구조로 ‘票’는 빈어여야 하고 b)와 d)가 같은 구조로 ‘人’은 모두 주어여야 한다. 하지만 변환관계를 통해 보면 a)와 b)가 같은 구조이다

성격에 따라 정할 것인가 아니면 위치에 따라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의미적인 성격에 따라 주어를 정해야 한다는 학자들은 주어의 의미적인 성질을 행위자로 제한하고 행위자가 아닌 의미성분이 문두에 온 경우 주어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위치에 따라 주어를 정해야 한다는 학자들은 문두에 있는 성분이면 그 의미적인 성질이 어떻든 주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朱德熙(1985)는 통사적인 변환관계를 기본으로 한 위치를 기준으로 주어를 정해야 한다고 한다.

買票	住人
不買票	不住人
買不買票	住不住人
買票不買	住人不住
沒買票	沒住人
買票沒有	住人沒有
買了票了	住了人了
買一張票	住一個人
買他幾張票	住他幾個人
買不了票	住不了人

같은 방법으로 c)와 d)가 같은 구조임을 증명할 수 있다. 이는 곧 중국어에서 주어 행위자, 빈어와 대상 간에 일대일 대응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시간이나 장소성분이 문두에 있는 경우에도 이들을 주어로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은 이들을 부사어로 간주하나 시간이나 장소성분이 문두에 나오는 문장도 전형적인 주술구조와 비교해 보면 동일한 구조임이 드러난다.

他們種樹(A)	今天 (這兒) 種樹(B)	馬上種樹(C)
他們不種樹	今天 (這兒) 不種樹	*馬上不種樹
他們種不種樹	今天 (這兒) 種不種樹	*馬上種不種樹
他們沒種樹	今天 (這兒) 沒種樹	*馬上沒種樹
他們種樹沒有	今天 (這兒) 種樹沒有	*馬上種樹沒有
他們是不是種樹	今天 (這兒) 是不是種樹	*馬上是不是種樹
他們也許種樹	今天 (這兒) 也許種樹	*馬上也許種樹
他們要是種樹...	今天 (這兒) 要是種樹...	*馬上要是種樹
他們不但種樹...	今天 (這兒) 不但種樹...	*馬上不但種樹
他們所種的樹...	今天 (這兒) 所種的樹...	*馬上所種的樹

A는 전형적인 주술구조이고 C는 수식구조이며 B는 시간이나 장소가

문두에 있는 구조인데 의미적으로는 B와 C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변환관계를 통해서 보면 B와 A가 같은 구조이고 B와 C는 별 공통점이 없다. 이를 근거로 B를 수식구조가 아닌 주술구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중국어에서 장소나 시간성분도 주어라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토론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어에서 주어나 빈어가 되는 성분에 의미적인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문두에 있는 행위자 이외의 의미성분도 주어로 간주하면 중국어 주술술어문의 범위는 상당히 넓어진다. 따라서 대주어나 소주어가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나 행위자 이외의 의미성분인 경우에도 주술술어문을 이룰 수 있다. 예를 들면

(9) 今天天氣很好。

(10) 這幾種農活兒我們全都學會了。

예 (9)에서 대주어는 ‘今天’이라는 시간 성분이 화제 역할을 하고 서술어 ‘天氣很好’는 이 화제가 어떻다고 설명을 해 주고 있고 예(10)에서 대주어 ‘這幾種農活兒’는 동사 ‘學’의 대상으로 화제 역할을 하고 서술어 ‘我們全都學會了’는 화제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어의 주술술어문은 대주어와 소주어의 의미적인 성질이 어떻든 모두 ‘화제-설명’의 형태를 취하며 특히 설명부분이 또 하나의 주술구조이기 때문에 좀 더 두드러진 ‘화제-설명’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IV. 韓國語의 二重主語文과 話題化文

한국어에서는 성분들 간의 문법적인 관계가 ‘조사’나 ‘어미’를 통해 표현 되는데 그중 문장성분들 간의 격관계는 격조사에 의해 표현된다. 南基心·高永根의 《標準國語文法論》(1985: 25)에서 한국어 문법의 여러 가지 특

징 중 하나로 이중주어문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한국어의 이중주어문은 하나의 문장에 두 개의 주어를 가지는 문장이라 보았다. 문장성분 간의 격관계는 격조사에 의해 표시되므로 한국어의 이중주어문이란 두 개의 명사성 성분이 주격조사를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예,

- (11) 코끼리가 코가 길다
- (12) 아이가 얼굴이 예쁘다

학교문법에서는 이러한 문장을 우선 두 부분으로 나누고 첫 번째 명사 [코끼리가/아이가]를 주어로, 나머지를 술어[코가 길다/얼굴이 예쁘다]로 보며, 따라서 술어 전체가 하나의 완전한 문장을 이룬다고 본다. 즉[코끼리가/아이가]라는 주어 명사구와 [코가 길다/얼굴이 예쁘다]라는 서술절이 복합되어 이루어진 복합문이란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의 이중주어문에서도 대주어와 소주어간에는 의미적으로 중국어의 주술술어문처럼 종속관계 혹은 전체와 부분 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대주어와 소주어 사이에 속격조사 '의'를 넣을 수 있다. 예를 들면,

- (11') 코끼리의 코가 길다
- (12') 아이의 얼굴이 예쁘다.

이렇게 되면 전체 문장은 이중주어문에서 단주어문이 되지만 중국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1), (12)와 (11'), (12')와는 서술하는 바가 같지 않다. 예를 들면 (11)은 '코끼리'가 어떻다는 것이지만 (11')에서는 '코끼리의 코'가 어떻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 역시 중국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이중주어문의 대주어와 소주어 사이에 조사 '의'를 넣어 단주어문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 (13) 장선생님이 사람이 좋다.
- *장선생님의 사람이 좋다.

따라서 이런 문장이 특수한 문형이 아니라 단지 전체, 부분 관계에 있는 두 명사 사이의 조사 '의'가 생략되었을 따름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중국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만약 어떤 문장을 '화제-설명'구조로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바로 이런 문장일 것이다. 즉 대주어가 화제로서 뒤에 이어지는 설명의 대상 역할을 하고 서술어 부분은 하나의 문장형태를 띠고 화제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화제-설명'이라는 화제구조를 중심으로 보면 조사 '은'이 문두의 명사에 붙어 있는 문장도 살펴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조사 '은'은 주격 조사의 일종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간주되기도 한다. 주격조사로 간주되는 이유는 어떤 문장에서는 주격조사 대신 조사 '은'만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 (14) 나는 연필을 두 자루 샀다.
→ 내가 연필을 두 자루 샀다.

위 예문에서 주어로 간주되는 '나'에는 주격조사 없이 조사 '은'만 붙어 있으며 이 문장은 다시 '은'대신 주격조사가 쓰인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문장에서는 주격조사와 조사 '은'이 모두 출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 (15) 달은 보름달이 밝다.

이런 문장의 조사 '은'도 주격조사로 바꿀 수 있고 이럴 경우 두 개의 주격조사가 출현하여 이중주격문을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면

- (15') 달이 보름달이 밝다

이런 경우 (15')외에 (15)도 모두 문두 성분이 서술어 부분의 설명의

대상이 되는 화제의 성격을 띠며 서술어 부분은 자체가 하나의 주술구조로서 화제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역시 두드러진 화제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문두에 주격조사가 쓰인 경우에 비해 조사 ‘은’이 쓰인 경우 ‘대비’의 의미가 더해지는 것 같다. 예를 들면 (15)에서는 ‘달’은 어떤 반면 ‘다른 것’은 ‘어떻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비슷하지만 성격이 약간 다른 예도 있다. 예를 들면

(16) 오늘은 내가 고기가 잘 잡힌다.

문두의 ‘오늘’은 의미적으로 시간을 나타내며 한국어에서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주어가 되는 데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 문장 문두의 조사 ‘은’은 주격조사로 바뀔 수 없다. 하지만 이 문장도 ‘오늘’을 화제로 이 화제에 대해 ‘내가 고기가 잘 잡힌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렇듯 조사 ‘은’은 ‘화제-설명’구조의 화제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근거로 Li & Thompson은 ‘은’을 화제표지로 보았다. 그들은 화제를 중심으로 한 언어유형론을 논하면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주어와 화제를 모두 중시하는 언어로 분류했는데 그 근거 중 하나가 바로 한국어와 일본어에는 주격조사 외에 화제를 나타내는 조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만약 조사 ‘은’을 화제표지로 본다면 한국어 화제구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문장까지 한층 더 넓어질 수 있다.

(17) 그 책은 내가 다 봤다.

(18) 축구는 그 애가 제일 잘 한다.

위의 문장에서 문두에 있는 명사는 모두 동사의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목적어의 형태로 나타난다.

(17') 내가 그 책을 다 봤다.

(18') 그 애가 축구를 제일 잘 한다

이렇듯 목적어가 문두로 이동한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조사 ‘은’ 대신 문두에서도 목적격 조사가 수반될 수 있지만 이중주어문과는 다르게 조사 ‘은’이 주격조사로 대체되지는 못한다

(17“) 그 책을 내가 다 봤다.

* 그 책이 내가 다 봤다.

(18“) 축구를 그 애가 제일 잘 한다.

* 축구가 그 애가 제일 잘 한다.

신호철(1997)은 (17), (18)과 같이 목적어가 문두로 이동하는 경우 목적어가 화제 역할을 하며 문장 전체 구조는 역시 ‘화제-설명’의 화제구조를 이루는데 문두의 화제는 목적어 자리에서 이동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화제화문’을 이룬다고 주장한다⁵⁾

V. 中·韓 話題構造의 對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어에서 주어의 의미적 성질에 인위적인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면 시간이나 장소, 대상 등 의미성분이 문두에 있고 서술어가 주술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을 모두 주술술어문 이라고 볼 수 있으며 주술술어문은 두드러진 ‘화제-설명’의 화제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19) 這個人心眼兒好。=(1)

(20) 這幾種農活兒我們全都學會了。=(10)

5) ‘-은/는’을 화제표지로 본다면 ‘화제’를 문장성분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긴다. 실제로 일부 학자들은 한국어 이중주어문을 설명하면서 ‘화제’를 하나의 문장성분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용어의 일관성을 위해 ‘주제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즉 한국어 이중주어문의 기본적인 구조는 ‘주제어-주어-서술어’라는 것이다.

한국어의 경우 중국어 예(19)와 같이 대주어와 소주어 간에 소유나 부분, 전체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이중주어문을 이룬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어의 주술술어문과 한국어의 이중주어문은 여러 가지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두 개의 명사가 문두에 출현한다는 점이 같으며, 두 번째로 이 두 명사 사이에 대개 종속관계나 부분-전체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이 같으며, 세 번째로 두 명사 사이에 조사 ‘-의’나 ‘的’를 끼워 넣음으로서 두 개의 명사를 하나로 묶을 수 있지만 이럴 경우 의미적으로 차이가 나고 또 모든 문장이 이렇게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 중국어의 주술술어문이나 한국어의 이중주어문의 기능은 모두 두드러진 ‘화제-설명’구조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두에 나오는 대주어는 화제로 보며 술어부분은 화제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설명 부분은 자체가 하나의 문장을 이루며 따라서 이런 설명은 일반적인 설명에 비하여 더 자세하고, 더 구체적인 것이다. 즉 중국어의 주술술어문과 한국어의 이중주어문은 그 본래의 문형이 완전히 같을 뿐만 아니라, 그 변환 상황과 변환 전후의 의미상의 미세한 차이 또한 완전히 같다. 예를 들면,

(21) 코끼리가 코가 길다=(11)

중국어의 주술술어문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이중주어문의 범위는 중국어 주술술어문 만큼 크지 못한다. 하지만 한국어 조사 ‘은’을 화제표지로 본다면 목적어가 문두로 이동해서 조사 ‘은’을 수반하는 문장도 화제구문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22) 그 책은 내가 다 봤다.=(17)

여기서 문두의 ‘그 책’ 뒤에 만약 다른 조사가 온다면 목적격조사 ‘-을/를’만이 올 수 있지 어떤 경우에도 주격조사 ‘-이/가’는 올 수 없다. 따라서 이런 문장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은 목적어나 다른 문장성분이 문두로

이동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파생된 것이며 이런 파생의 주된 기능은 ‘화제-설명’의 구조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대상 (patient) 성분 외에도 거의 모든 명사성분이 문두로 이동하고 조사 ‘-은/는’이 옴으로써 ‘화제화문’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중국어와 한국어의 이중주어문 혹은 주술술어문 만을 비교하면 그 범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지만 한국어의 이중주어문과 화제화문을 합치면 실질적으로 중국어의 주술술어문과 거의 같은 문법현상을 가리키게 된다. 따라서 한국어의 이중주어문, 화제화문을 합치면 그 범위는 대략 중국어의 주술술어문에 해당한다.

이런 문장들은 대개 단순한 주술문의 형태로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袁毓林(1996)은 중국어의 주술술어문을 ‘話題化(topicalization)’ 개념으로서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중국어의 주술술어문에서 대주어나 소주어는 화제화를 통해 파생된 것이며, 이런 파생의 동기는 화용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원래 문중에 있는 성분이 문두에 와서 화제가 되며, 화용적인 동기가 있더라도 통사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런 파생성분은 역시 문법적인 주어라고 보았다.⁶⁾ 그는 나아가서 중국어의 주술술어문을 화제화구조라 하고, 화제화구조란 ‘화제-설명(topic-comment)’구조를 말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대주어와 소주어간에 소유나 부분, 전체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명사의 결합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23) 張先生的臉色變了 → 張先生臉色變了

여기서 ‘臉色’은 명사이지만 동사처럼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명사를 지배하는 결합가 능력이 있다고 袁毓林은 주장한다. 즉 한 문장 안에서 단지 ‘臉色’이라고만 하면 의미가 완전하지 못하고 ‘누구의 혹은 ‘무엇의 ‘臉色’이라 해야만 의미가 완전해지며 따라서 ‘누구의’ 혹은 ‘무엇의’에 해

6) 袁毓林은 중국어의 모든 주술술어문을 화제화에 의해 파생되었다고 하나, 모든 주술술어문이 파생된 것은 아니다.

당하는 명사는 ‘臉色’의 논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臉色은 일항명사라는 것이다.’⁷⁾ 이런 일항명사와 그 논항으로 이루어진 수식구조에서 구조조사 ‘的’을 생략하면 주술술어문이 파생된다는 것이다 그 외 일반적인 주술문에서 주술술어문이 파생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목적어가 앞으로 이동(object-fronting) 하는 것이다 목적어는 주어 앞으로 이동하여 대주어가 되거나, 주어 뒤 즉, 동사 앞에 놓여 소주어가 된다. 예

(23) 小王吃過荔枝 → 荔枝小王吃過 → 小王荔枝吃過

위 예문에서 첫 번째 문장은 목적어가 문장의 맨 뒤에 있는 일반적인 주술문이고 두 번째 문장은 목적어가 대주어 위치로 이동한 문장이고 세 번째는 목적어가 소주어 위치로 이동한 문장이다. 이런 주장은 한국어의 이중주어문과 화제화문에도 대체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문두로 빼고 문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 문두성분을 설명하는 소위 화제구조이 비교적 자유롭게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화자가 무엇이든 말하고자하는 바를 문두로 옮기고 문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를 설명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쉽다는 것이다. 물론 화제구조가 중국어나 한국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영어에도 화제구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예,

(24) The man over there I do not like very much.

예(24)에서와 같이 화제구조로 된 문장이 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이런 현상이 상당히 드물다.⁸⁾ 하지만 중국어와 한국어에서는 이런 구문이 상당히 자주 쓰이고 또 이런 구문을 구성하는데 따르는 제약이 많지 않다

7) 袁毓林, <一價名詞的認知研究>, 《中國語文》4, 1994.

8) F. R. Palmer, 《語義學》第四部分, <說話含義以及語義學和邏輯>, 周紹珩摘譯, 《國外語言學》1984, 4.

는 것이 그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중국 문법학계에서는 일찍이 중국어 문장이 ‘화제-설명’의 성질을 띠고 있다는데 주목하였다.⁹⁾ 중국어에서 ‘화제-설명’구조가 두드러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화제’가 화용적인 성분인지 혹은 통사적인 성분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또 중국어의 모든 문장을 ‘화제-설명’구조로 설명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화제’를 화용적인 성분으로 보든 통사적인 성분으로 보든 중국어와 한국어의 일부 문장은 ‘화제-설명’구조로 관련된 문법 현상을 아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문장이 바로 중국어의 주술술어문, 한국어의 이중주어문과 화제화문이다. 이런 문장의 특징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문두에 놓고 문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문두의 성분에 대한 설명을 하며 여기서 문장의 나머지 부분이 일반 문장처럼 다시 주술구조를 이룬다.

사실 화제가 아닌 다른 유형학적 기준으로 보면 중국어와 한국어는 상당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선 형태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어는 전형적인 교착어에 속한다. 이런 언어에서는 어근(root)을 중심으로 거기에 뜻을 더하거나 품사를 바꾸는 접사 또는 어미가 차례로 여럿이 덧붙어서 단어를 이룬다. 반면 중국어는 고립어에 속한다. 낱말들이 대개 형태소를 한 줄로 엮어 놓은 식으로 되어 있으며 각종 문법 관계가 다양한 접사(affix)의 활용이나 낱말 자체의 내적 변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낱말의 배열 순서나 개별적인 문법 語助詞(particle)의 활용을 통하여 결정된다¹⁰⁾ 언어의 친족관계를 중심으로 보면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하고¹¹⁾

9) 趙元任, 《漢語口語語法》(商務印書館, 1979), 45 쪽 “주어와 술어의 관계는 동작자와 동작의 관계이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이런 비율은 그다지 많지 않아, 대략 50%를 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어에서 주어와 술어를 화제와 설명으로 보는 것은 비교적 적당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화제-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없었으며, ‘화제-설명’에 대한 분석 가능성만을 언급했다.

10) Jerry Norman(전광진역), 《중국어언어학총론-중국어, 그 실체를 밝힌다》, (동문선, 1996), 22-27쪽.

11) 한국어는 아직 그 계통이 확실히 밝혀진 것은 아니다. 최근에 서양에서 간행되는 언어학 입문서나 사전류에서도 한국어를 “아직 계통이 밝혀지지 않은

중국어는 티벳어족(Sino-Tibetan)에 속한다. 주어, 동사, 목적어간의 기본적인 어순을 보면 한국어는 ‘주어-목적어-동사’ 순의 언어이고 중국어는 ‘주어-동사-목적어’ 순의 언어이다. 이렇듯 비록 우리가 지금 비록 많은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기본적인 성질에 있어서 한국어와 중국어는 별 공통점이 없다.

하지만 화제구조를 중심으로 보면 적지 않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어에서 파생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주술술어문과 한국어의 화제화문은 그 범위만 같을 뿐 아니라 관련된 통사현상, 기능 등에 있어서도 주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첫째, 중국어와 한국어는 모두 원래 문장의 다른 위치에 있던 성분을 문두로 이동시킬 수 있다. 중국어에서 이렇게 문두로 이동된 성분이 주어라 되고 그래서 주술술어문을 이루지만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문두로 이동된 성분은 모두 주어라 될 수는 없다. 둘째, 이런 파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고자하는 바(화제)를 먼저 말하고, 문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말하고자하는 바를 설명하는 화제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 주목해 Li & Thompson이 화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언어유형이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물론 그들은 중국어의 경우 화제를 중시하는 언어로, 한국어의 경우 화제와 주어를 모두 중시하는 언어로 분류했지만 본문에서 다루었던 문장들에서는 중국어와 한국어간에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두 언어에서 이런 문장들의 비중은 작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袁毓林(1996)은 중국어에는 형태변화가 없기 때문에 주술구조가 구가 될 수도 있고 문장이 될 수도 있으며 이런 특징 때문에 주술술어문이라는 특별한 문장형태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중국어에 주술술어문이라는 특별한 문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중국어의 형태변화가 없다는 특징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형태변화의 구체적 표현 방식이 인

언어”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많은 한국 학자들은 G.J.Ramstedt나 N.Poppe와 같은 알타이어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한국어가 알타이어족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믿고 있다. 《한국의 언어》(신구문화사, 1997), 16쪽.

구어와는 다르지만, 한국어는 형태변화가 있는 언어이다. 중국어가 형태가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주술술어문과 같은 문장이 존재한다는 해석은 중국어만 놓고 보면 문제가 없지만 중국어와 유형론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고 특히 외형적인 형태변화가 있는 한국어에도 거의 같은 문법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문제가 있는 주장이다.

VI. 結 論

중국과 한국의 문법학계에서는 모두 주술술어문 혹은 이중주어문이 자신들 언어만의 특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는 중국이나 한국에서 자신들 언어의 특징이라고 했을 때 그 비교대상을 인구어(印歐語)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즉 인구어에는 이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어와 한국어를 직접 비교하면 이런 현상은 두 언어의 중요한 공통점이 된다. 본문에서는 중국어와 한국어가 형태변화나 친족관계, 기본어순 등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공통점이 없는 두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화제구조라는 각도에서 보면 많은 공통점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중국어의 주술술어문과 한국어의 이중주어문, 화제화문은 문두 성분 외에 나머지 부분이 주술구조를 이루는데, 이런 문장의 핵심적인 기능은 말하고자하는 바를 문두에 두고 문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말하고자하는 바를 설명하는 것이다. 사실 이런 소위 화제성은 다른 언어들에서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중국어와 한국어에서는 다른 언어에서 볼 수 없는 이중주어가 나타나고 화제구조를 파생시키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서술어부분이 주술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화제구조에서 화제에 대한 설명은 다른 문장에 비해 더 상세하고 더 틀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Li & Thompson의 주어와 화제를 중심으로 한 언어유형론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문두 성분의 화제성이 많은 언어에 나타나는 하지만 일부 언어에서는 그 문두 성분의 화제성이 특별히 두드러지며

이를 근거로 언어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 언어의 화제구조의 특징을 살펴보고 화제를 중심으로 여러 언어간의 친소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는 상당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參考文獻>

- 김일웅, <국어의 '주제-설명'구조>, 《언어연구》3(부산대학교출판사), 1980.
- 남기심, <주어와 주제어>, 《국어생활》3(국어연구소), 1985.
-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 문법론》(탑출판사), 1985.
- 박승윤, <담화기능상으로 본 국어의 주제>, 《언어》(11-1, 한국언어연구회), 1986.
- 박정구 등, 《표준중국어문법》(수정판, 한울 아카데미), 1989.
- 이익섭·이상익·채완, 《한국의 언어》(신구문화사), 1997.
- 이창호, <현대한어 주제에 관한 담화 화용론적 연구>(서울: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1997.
- 임홍빈, <국어의 주제화 연구>, 《국어문법의 심층》2(태학사), 1998.
- 신호철, <현대국어의 주제어에 대한 연구>(서울: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1997.
- 최규수, 《한국어 주제어와 주어 연구》(부산대학교출판사), 1999.
- 曹逢甫, 《主題在漢語中的功能研究：邁向言談分析的第一步》(謝天蔚譯 語文出版社), 1995.
- 陳平, <漢語中結構話題的語用解釋和關係化>, 徐赳赳 譯, 《國外語言學》4, 1996.
- 范繼淹, <多項NP句>, 《中國語文》1, 1984.
- 范曉, <漢語句法結構中的主語>, 范曉·李熙宗·戴耀晶主編 《語言研究的新思路》(上海教育出版社), 1998.
- 胡裕樹, <試論漢語句首的名詞性成分>, 《語言教學與研究》4, 1982.

- 李臨定, <主語的語法地位>, 《中國語文》 1, 1985.
- 劉月華·潘文娛 等, 《實用現代漢語語法》(增訂本, 商務印書館, 2001.
- 呂叔湘, <主謂謂語句舉例>, 《中國語文》 5, 1986.
- 沈家煊, <不加說明的話題從“對答”看“話題-說明”>, 《中國語文》 5, 1989.
- 史有為, <主語後停頓與話題>, 《中國語言學報》 5, 商務印書館, 1995.
- 石毓智, <漢語的主語與主題之辨>, 《語言文字學》 11, 2001.
- 徐烈炯·劉丹青, 《話題的結構與功能》(上海教育出版社, 1998.
- 楊成凱, <‘主主謂’句法範疇和話題概念的邏輯分析: 漢語主賓語研究之一>, 《中國語文》 4, 1997.
- 袁毓林, <一價名詞的認知研究>, 《中國語文》 4, 1994.
- 袁毓林, <話題化及相關的語法過程>, 《中國語文》 4, 1996.
- 朱德熙, 《語法講義》(商務印書館, 1982.
- 朱德熙, 《語法答問》(商務印書館, 1985.
- Li, C.N. & Thompson, S.A. 1976, “Subject and Topic: A New Typology of Language”, Subject and Topic. Academic Press.(李谷城摘譯), <主語與主題: 一種新的語言類型學>, 《國外語言學》2, 1984.

<中文提要>

漢語語法學界一般認為主謂謂語句是漢語特有的一種比較特殊的句子。有趣的是韓語語法也有與漢語非常相似的句子，韓語語法學界叫雙重主語句和話題化句。韓語的雙重主語句和話題化句不但其範圍剛好與漢語的主謂謂語句相當，這種句子所表達的句子的功能、變換關係和變換前後的細微區別等都很相似。我們認為漢語的主謂謂語句和韓語的雙重主語句、話題化句實際上構成‘話題-說明’結構，即話題結構。漢韓語法學界都認為這種句子是自己語法的特點，但如果把漢語和韓語的情況放到一起考慮，這一特殊的句子就成了兩種語

言之間共同的句式。

Li&Thompson(1976) 從語言類型學的角度把語言分爲四種。他們把漢語分爲‘注重話題的語言’，把韓語分爲 話題和主語都注重的語言。我們觀察兩種語言的有關句子之後發現，漢語和韓語共有注重話題語言的多種特點。因爲漢語和韓語裏面‘話題結構’的表現和印歐語很不相同，至少從漢韓兩種語言的情況來看Li&Thompson的提法是有一定道理的。袁毓林(1996) 認爲因爲漢語沒有嚴格的形態變化，所以主謂結構既可以是一個詞組、也可以直接實現爲一個句子。但問題是韓語是有形態的語言。所以漢語沒有形態這一特點導致主謂謂語句這種獨特語法現象的觀點是有商榷的地方的。

我們認爲漢韓兩種語言的話題結構實際上都是爲了突出“話題-說明”結構，說話人把自己最感興趣的、想要說的放在句首，句子剩下來的部分對這一句首成分進行說明，這種句子的謂語部分本身可以是一個句子，所以這種說明是比其他結構的說明更完整、更詳細的。我們要說的是‘話題-說明’結構可以給漢語的主謂謂語句和韓語的雙重主語句、話題化句的分析提供一個統一的、頗有說服力的說明。漢語和韓語這兩種語言裏面話題確實是個有用的概念，在這兩種語言的語法體系裏面話題的地位比別的語言的話題特殊。

주제어 : 話題結構, 主謂謂語句, 雙重主語句, 話題化句, ‘話題-說明’